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내용 재구성 방향 탐색

Exploring the Direction of Music Contents Reconstruction in the ‘Pleasant Life’ in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박지현* · 김은주** · 송정주*** · 박상아**** · 박지영***** ·

이동희***** · 정다이***** · 주대창*****

Ji-Hyun Park  · Eun-Ju Kim  · Jeong-Ju Song  · Sang-Ah Park  ·

Ji-Young Park  · Dong-Hee Lee  · Dayi Jeong  · Dae-Chang Ju 

초록 본 연구는 2022 개정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변화에 발맞추어 음악교육의 목적과 가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내용 재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음악과 관련된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누리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대만, 미국, 일본의 초등 저학년 음악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 기반의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음악 기반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마련과 더불어 ‘즐거운 생활’ 교과의 교육적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을 포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2022 개정 초등학교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음악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constructing music contents of the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based on music,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rpose, value, and identity of music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troduced in the 2022 revised Pleasant life curriculum. First, the Pleasant life curriculum was analyzed to identify its music-related content and characteristics. Next, the connection between the Nuri curriculum and the music curriculum was examined. In addition, cases of music education for 1st and 2nd grades elementary schools in Taiwa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analyzed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various directions were explored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music-based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These proposal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encompass both the development of a music-based integrated curriculum that can foster the sensibility and creativity of lower elementary students and the redefinition of the educational role and identity of the Pleasant life subject.

Key words: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subject, Pleasant life, music education, curriculum reconstruction

* First author, E-mail: jhp@gnue.ac.kr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5 Pilmun-daero, Buk-gu, Gwangju, Sou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mileej1985@naver.com

Instructor,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hak-ro, Wansan-gu, Jeonbuk, South Korea

*** Co-author, E-mail: j-jduck@hanmail.net

Teacher, Daegu Suchang Elementary School, 30, Dalseong-ro 22-gil, Jung-gu, Daegu, South Korea

**** Co-author, E-mail: sanga0505@korea.kr

Teacher, Seoul Bonghyun Elementary School, 117, Seonghyun-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 Co-author, E-mail: whang1533@hotmail.com

Specially Appointed Professor, Suwon University, 17, Wauan-gil,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South Korea

***** Co-author, E-mail: saebyuk7@gjnue.ac.kr

Assistant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55, Sammak-ro, Manan-gu, Anyang-si, Gyeonggi-do, South Korea

***** Co-author, E-mail: dayijeong30@gmail.com

Doctoral degree student, Wuerzburg University, 2, Sanderring, Wuerzburg, Germany

***** Co-author, E-mail: dcju@gnue.ac.kr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5 Pilmun-daero, Buk-gu, Gwangju, South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초등학교 1~2학년 교과 편제 중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각각 독립된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묶어 ‘통합교과’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등장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총 일곱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통합교과의 기저를 이루는 원 교과의 구성, 통합교과 운영 방식, 교과서 개발 방향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원 교과와의 조정 및 분리에 대한 논의 아래 교과의 정체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타 교과에 비해 큰 폭의 변화를 수반하며 일관되지 못한 통합 논리를 지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이로 인해 통합교과는 성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며 불분명한 교과, 한시적인 교과, 모호한 교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Jo, 2018). 한편 원 교과 교육의 관점에서도 통합교과를 통한 초등학교 1~2학년 교육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즐거운 생활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변천을 겪으면서 음악 교과의 핵심 목표와 내용이 점차 모호해졌다. 통합교과 등장 초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음악 내용이 유지되다가 ‘즐거운 생활 교과 = 놀이 중심 교과’라는 성격의 규명 속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이후 주제 중심의 통합교과 운영체제 속에 음악적 사상이 퇴조되는 양상을 보인다(Ju, 2024).

이러한 양상은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여기-우리 삶’이라는 통합교과 공통 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삶의 맥락과 단절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이 아니라 ‘지금-여기-우리 삶’을 즐기는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신체적 표현, 음악적 표현, 조형적 표현 등 기능 훈련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놀이와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그러나 ‘음악적 표현’을 단순히 기능 훈련으로 간주하고 지양하는 것은 즐거운 생활의 원 교과 중 하나인 음악 교과의 본질적인 특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형태로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통한 예술적 경험을 기반으로 미적 감수성과 음악성의 함양을 추구하는 것은 음악 교과 고유의 본질이자 학교 음악교육의 핵심 목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역사적인 관점(Ju, 2024; Kim, 2024a, 2024b; Yang, 2024), 국악교

육의 관점(Lee & Park, 2024a, 2024b), 교과 교육과정 고찰과 실태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Baek et al., 2025; Kim, 2024c; Lim et al., 2024; Oh et al., 2024; Song & Kim, 2024; Yang et al., 2024) 등 여러 관점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즐거운 생활에서의 음악 교육 부족을 지적하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음악적 발달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4년 7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이 의결됨에 따라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는 체육, 음악, 미술을 원 교과로 하던 기존의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신체활동 관련 내용이 분리되면서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필요성과 깊이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가치를 살리고 교육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내용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교육과정에서 음악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각 항을 재구성한 예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변화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음악을 통한 감성적, 창의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즐거운 생활’ 교과의 교육적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의미가 있다.

2.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 반영된 음악 관련 내용 및 특징은 무엇인가?
- 둘째, 유치원 누리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3~4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의 특징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 셋째, 국외의 초등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여러 유형별 특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재구성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넷째,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통합교과의 정체성에 따른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내용 재구성 방향은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관련 내용과 특징

1) 성격 및 목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는 교과 역량과 교과외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교과 역량의 경우 ‘지금-여기-우리 삶’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관통하는 통합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그러나 이는 타 교과 역량과 매우 상이한 부분으로 교과 간 연계, 학년군 간 연계성을 맺기에도 난해한 측면이 있으며, 이 역량을 학생들이 갖추고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Kim, 2024c). 또한 ‘즐거운 생활’ 교과외 정의를 살펴보면, 학생이 놀이를 통해 지금-여기-우리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 경험 중심 교과’라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놀이=즐거움’이라는 명제가 모든 학습 상황에 적합하지, ‘지금, 여기, 우리’가 과거나 미래, 다른 장소, 여러 공동체의 삶에 관한 다채로운 주제를 포괄함으로써 폭넓은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놀이’에 의존하여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흥미 유발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교육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제고가 필요하다(Ju, 2024).

한편, ‘목표’ 항의 세 가지 목표 중 음악교육과 관련된 것은 ‘문화 예술 활동과 신체 활동을 통해 지금을 즐긴다.’이다. 그러나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소리 탐색, 풍부한 음악적 경험, 다채로운 음악 활동과 탐구 과정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악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음악적 감성과 창의성 함양과 같은 것과는 관련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음악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이러한 접근은 음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예술 활동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포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놀이 중심 경험에 치중한 결과 학문적 정체성과 음악교육 본연의 목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는 누리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표현’이 즐거운 생활에서 소멸되어 ‘놀이 중심의 표현’이 등장하며, 다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음악 학습 경험’이 생성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비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Back et al., 2025).

2)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지금-여기-우리 삶’ 역량을 기반으로 설정된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가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범주별 내용 요소로 교과의 특성이 드러나 있다.

범주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대체로 음악과 연관 없는 탈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음악 학습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핵심 아이디어나 학습 요소 중 일부는 음악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음악 교과의 핵심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문화예술 즐김/체험/향유’의 특정 내용만 중복 제시되고 보다 다채로운 음악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의 경우 종래에 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서술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음악 개념이 통합교과 체제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Kim, 2024c). 즐거운 생활의 각 영역별 성취기준과 음악 교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즐02-01], [2즐02-02], [2즐02-03], [2즐03-03]은 ‘문화 예술’, ‘전통문화’가 내포하는 내용이 음악 교과와 관련이 있으나 ‘문화’, ‘예술’, ‘전통문화’가 간접적인 추측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악 교과의 본질과 특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음악과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기 어렵다. 더욱이 ‘향유한다’, ‘즐긴다’, ‘체험한다’와 같은 용어는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지녀 이 성취기준을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평가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둘째, [2즐04-03]의 경우 ‘공연 활동’이 음악과의 ‘연주 영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4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주 영역에서 해당 내용은 ‘[4음01-04] 생활 속에서 음악을 경험하며 연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4). 그러나 1~2학년의 ‘공연’이 3~4학년의 ‘연주 참여’보다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학습의 위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3) 교수·학습 및 평가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 항은 ‘교수·학습의 방향,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방향, 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적 관점에서 음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의 제시는 미흡하였다.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여럿이 함

게하는 놀이'와 '협력하여 표현하는 활동'으로 그 교육 활동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활동을 '놀이 중심의 예술 활동'으로만 다루고 있으므로 놀이를 수반하지 않은 다양한 음악 활동은 어떻게 다를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 항에서도 역시 일반적인 평가의 방향과 방법만을 나열하고 있어 음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학습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음악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누리 과정, 즐거운 생활, 초등 3~4학년 음악 교과와 연계성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유치원 누리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중간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연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음악교육의 체계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내용은 2019 개정 누리 교육과정,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2022 개정 3~4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살핀 선행연구(Back et al., 2025; Lim et al., 2024)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 항목별로 연계성을 살피는 관점을 두루 고려하였다. 이때 연계성을 살피는 기준은 '연계(반복, 발전)', '비연계(중단, 급변, 역행)'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특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의 성격 항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모두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는 공통점과 더불어 놀이, 경험, 표현을 위한 교육 내용이 소리, 이미지, 신체표현 등으로 확대, 심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학습자의 발달적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발전' 형태의 연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즐거운 생활과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론을 따르는 교과 교육과정 수준의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소극적 연계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음악을 경험하고 탐색하며 음악 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목표 항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즐거운 생활에서는 누리과정의 예술 경험 영역보다 예술의 범위가 좁아져 총괄 목표 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으며 음악과의 연계성도 부족하였다. 즐거운 생활은 놀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예술'의 본질이 축소되어, 누리 교육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간 연계 역할이 미흡하였다(Lim et al., 2024). 이에 유아부터 초등학교 단계로 이어지는 음악교육 체계가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 단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각 범주별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분석해 본 결과, 교육의 내용이 역행하거나 중단·급변하여 비연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연계가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의

내용이 상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는 기초적인 교육과정 원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누리과정의 예술 경험 영역의 '내용', 즐거운 생활과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즐거운 생활과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의 경우 '발전' 형태의 연계보다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되는 내용도 매우 적은 양상을 보였다(Lim et al., 2024). 따라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누리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 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국외 초등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의 시사점

통합교과를 통해 음악 수업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초등 저학년 음악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국외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1~2학년 국외 교육과정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 운영 형태는 현재의 우리나라 통합교과 교육과정과 같이 통합교과로서 음악 교수·학습이 다루어지는 경우, 예술 교과군으로 제시되나 교육과정 내에서 음악 교과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1~3차 교육과정 시기 때와 같이 음악이 독립 교과로서 운영되는 경우 등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Song & Kim, 2024). 이에 이처럼 다양한 운영 형태별 국외 초등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 음악 내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통합교과로서 통합 운영형 - 대만

대만은 음악이 통합교과의 한 분야로, 통합적 접근에 따라 다루어지는 나라이다. 이에 대만의 2010년 개정판 '국민 중·소학교 예술과 인문 학습 영역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육의 특성을 살펴보았다(K-12 Education Administration & Ministry of Education, n.d.). 대만의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교육은 국민 중소학교 9년의 과정의 기초 단계에 속해 있으며, '예술과 인문 학습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룬다. 이는 예술 학습과 인문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 예술, 음악,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특히 예술교육의 핵심을 '삶 속의 예술'에 두어 예술을 통해 감성을 계발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기를 기대한다. 내용 영역은 '탐색과 표현', '감상과 이해', '실천과 응용'으로 음악, 미술, 움직임은 포함한 공연 예술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은 저학년

(1~2학년), 고학년(3~6학년)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서 음악 내용과 활동 중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며 평가할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2) 예술 교과군으로서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 분리 운영형 - 미국

미국은 2014년 발표된 미국 음악 표준을 기반으로 예술 관련 교과, 즉 무용, 미디어아트, 음악, 연극, 시각 예술을 묶어 ‘국가 핵심 예술 표준(National Core Arts Standards)’을 통한 통합적 접근을 취하는 나라이다. 국가 핵심 예술 표준에서는 학교의 예술 커리큘럼, 교육과 평가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 사항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술교육의 특성을 강조한다(National Coalition for Core Arts Standards, 2024).

- 예술적 문해력 정의와 학습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과 평생 학습으로서의 목표 설정
- 예술 과정이 핵심 표준(anchor standards)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예술 분야 간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예술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지원
- 창작 활동은 예술적 과정의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인식
- 예술적 과정과 연계되는 코너스톤 평가를 채택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제 수행과 적용을 기반으로 평가

음악은 이에 근거하여 구성된 ‘핵심 음악 표준(Core Music Standards)’에 의해 독립 교과로서 유치원 이전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Oh et al., 2024).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것은 1, 2단계로, ‘창작하기’, ‘연주하기’, ‘반응하기’, ‘연계하기’의 영역별-단계별 수행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 유형은 예술 분야 간 공통점을 강조하면서도 음악의 특징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목표, 내용, 성취기준 체제로 제시함으로써 ‘예술-음악 혼합 운영형’으로서의 저학년 음악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3) 독립 교과로서 독립 운영형 - 일본

일본의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교육은 독립 교과로서의 음악 교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Oh et al., 2024). 일본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에 따라 구성된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은 2019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7). 여기서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의 목표를 (1) 지식과 기능의 습득, (2)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의 육성, (3) 배움의 태도와 인간성의 함양 등 3가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 ‘공통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악 요소를 청각적으로 구별하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지각하며, 지각과 느낌에 대해 생각하고 음악 기호와 용어를 이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Oh et al., 2024).

독립 교과로서 독립 운영형을 기반으로 한 음악교육은 음악의 심층적 이해와 전통 계승 강화에 이점이 있으며, 음악 활동에 대한 체계적 성취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저학년 수준에서부터 연주, 감상,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Song & Kim, 2024).

이상의 세 가지 유형별 국외 사례의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형태와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Types of music curriculum for 1st-2nd grade in elementary schools in foreign countries

	Taiwan	United States	Japan
Type of curriculum	Integrated curriculum	Integrated curriculum, independent subject	Independent curriculum
Revision	2010	2014	2019
Curriculum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aling with music in the arts and humanities areas Integrate ‘music’, ‘art’, and ‘m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bining dance, media art, music, theater, and visual arts to present ‘national core art standards.’ Music subject is operated independently by presenting ‘music core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ecific music learning contents are presented by dividing into expressions, appreciation, and common points In-depth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music is possible.
Impl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des directions for operational practices when integrated Specific cases of other countries operated as independent subjects could be identified 		

Ⅲ.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1. 통합 방식 변경 방향

앞선 논의를 통해,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원 교과인 음악 교과의 핵심 내용 제시가 미흡하며, 교과 역량과 교과의 정의가 음악교육의 본질을 담지 못하고 유치원 누리과정과 음악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외의 여러 사례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상의 관점을 바탕으로 통합 방식의 개선 방향을 <Table 2>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즐거운 생활 교과는 ‘탈학문’ 기반의 통합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통합(경험)과 교과(학문)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음악/미술 등의 학문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간학문적 통합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 총론에서 제시하는 역량과 연계하면서도, 초등 3-4학년 교육과정 및 모학문(음악·미술)의 역량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무엇을 놀이할 것인가’와 ‘어떻게 확장적으로 경험할 것인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놀이 경험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즉, 바른 생활은 실천/성찰의 경험(놀이), 슬기로운 생활은 탐구의 경험(놀이), 즐거운 생활은 ‘예술/표현의 경험(놀이)’으로 연계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다. 넷째,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인 역량 함양을 위해 음악·미술 교과의 주요 지식 요소와 표현 기능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Table 2> Proposed improvements for the integration approach of ‘Pleasant life’

2022 ‘Pleasant life’ integrated curriculum	Identity of the ‘Pleasant life’ integrated curriculum	Proposed direction for curriculum revision
Integration based on a ‘de-disciplinary’ approach	Integration approach that encompasses both the play-based Nuri curriculum and the subject-based curriculum of grades 3-4	Transformation towards an interdisciplinary-based integration
Competency development focused on the present (‘Here and Now’) and our lives	Competencies encompassing future development potential and practical applicability	Revised to include competencies outlined in the general curriculum framework and the disciplinary (music) competencies
Play-based learning experiences	Conne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uri curriculum) through play-based learning & use of various methods/skills in elementary education	Emphasis on artistic expression & play experiences

<Table 2> Continued

2022 'Pleasant life' integrated curriculum	Identity of the 'Pleasant life' integrated curriculum	Proposed direction for curriculum revision
De-emphasizing technical musical skills	Competency as a holistic concept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Specification of core disciplinary (music) knowledge (content elements) and skills (expression)

위 방향에 따라 통합(경험)과 교과(학문=음미)의 조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먼저, 보수적 접근(통합>음미)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틀과 형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음악·미술 교과의 요소를 추가·보완하여 전반적으로 재진술하는 방식이다. 반면, 개혁적 접근(통합<음미)에서는 통합교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예술과 교육'(가칭)과 같은 새로운 교과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Table 3>.

각 방향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는데, 보수적 접근의 개선 방향은 기존 통합교과의 기초를 유지하므로 가장 혼란이 적고 안정적이지만, 즐거운 생활이 갖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음악/미술 내용을 비체계적으로 통합교과 내용 체계 안에 옥여넣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한다. 한편 보다 개혁적인 접근의 개선 방향은 '음악/미술 관련 내용 강화'라는 국교위의 의결을 담아내면서 즐거운 생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안이지만, 오랜 기간 유지된 통합교과의 기초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새로움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의 교육과정이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3> Proposed direction for the content structure of the 'Pleasant life' curriculum

Direction	Key points	Goals	Content structure	Domains
Enhancing the integrated curriculum with music & visual arts	Maintain the existing 'Pleasant life' curriculum	Retain the competencies of the current integrated curriculum	Partially revise and supplement the characteristics and elements of music & visual arts	Maintain the framework of "Who, where, how, and what" while rearticulating it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 visual arts
Strengthening the music & visual arts-based integrated curriculum	Transform into an arts-integrated curriculum encompassing music & visual arts	Present competencies based on music & visual arts	Provide music & visual arts content suitable for grades 1-2	Establish a content-based framework of music & visual arts Develop a theme-based approach integrating music & visual arts

2. 성격 및 목표 구성 방향(안)

상술한 두 방향에 따라 즐거운 생활 교과의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을 예시적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성격 및 목표(안)은 다음과 같다.

1) 성격(안)

통합교과 기반으로 음악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에서는 ‘지금-여기-우리 삶’이라는 역량을 유지하면서 다음(예시 1)과 같이 음악 및 미술이라는 예술적 특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다.

(예시 1) 초등학교 통합교과로서 즐거운 생활과는 학생이 예술 놀이를 통해 ‘지금-여기-우리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예술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이다.

한편 음악과 미술을 기반으로 통합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는 2022 개정 음악과 및 미술과와 연계하되, 통합교과의 특성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다음(예시 2)와 같이 재작성할 수도 있다.

(예시 2) 초등학교 통합교과로서 예술과 생활과(가치)는 학생이 기초적인 음악·미술 기반 예술 활동을 하며 예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다양한 주제와 연계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이다.

2) 목표(안)

목표는 통합교과 기초와 맥을 함께 하도록(예시 1)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즉 놀이 중심 학습을 유지하되 단순한 게임 형태가 아니라 예술을 경험하고, 음악과 미술을 학습하는 형태가 놀이가 되는 음악·미술 놀이를 담는 것이다.

(예시 1) 예술 놀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여기-우리 삶’을 즐기며 소통한다.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금을 즐긴다.
-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음악/미술 중심의 예술 놀이 활동을 즐기며 감정과 정서를 표현한다.
-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며 창작하고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한편, 음악 및 미술의 특성을 보다 더 많이 투영할 경우 (예시 2)와 같은 목표를 제안할 수 있다. 예컨대 음악 교과 역량 중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성, 창의성, 공동체, 소통 역량'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2) 음악과 미술을 통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감성, 창의성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또래 공동체와 소통한다.

- 예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기른다.
- 삶 속의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창의성을 기른다.
-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또래 공동체와 소통한다.

3. 내용 및 성취기준 구성 방향(안)

1) 영역 및 내용(안)

내용 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영역'의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2 개정 통합교과의 영역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세 교과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역'이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기반 학문의 하위 영역이나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일차 조직자'(MoE, 2024)로, 교과의 성격과 맞물려 기반 학문의 하위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교과의 영역 설정 기초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 음악과 교육과정과 얼마나 연계할 것인지에 따라 현행 영역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시안이 가능할 수 있다.

(예시 1)

- 예술은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
- 예술로 어떻게 나타낼까
- 누가, 무엇을 예술로 나타냈을까

(예시 2)

- 음악을 연주하며 즐겨볼까 / 표현해볼까
- 음악을 들으며 즐겨볼까 / 표현해볼까
- 음악을 만들며 즐겨볼까 / 표현해볼까

(예시 3)

- 탐색 / 연주와 체험
- 표현 / 창작과 표현
- 감상 / 감상과 즐김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를 설정할 때도 영역에 따라 여러 방향의 예시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의 영역을 유지할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진술을 유지하면서 부분 수정하는 방향<Table 4>, 음악과 미술이 통합된 예술 관점을 좀 더 보완하여 수정하는 방향<Table 5>, 음악과 미술을 각각 좀 더 강화하여 수정하는 방향<Table 6> 등이 가능하다.

<Table 4> ‘Sample content for the ‘Who will we become?’ domain

	Content elements	
Knowledge & Understanding	• Sound and visual perception	• Artistic sensibility
Process & Skills	• playing	• Expressing • Appreciating
Values & Attitudes	• Emotional life	• Cultural life

<Table 5> Sample content for the domain ‘How can we express ourselves through art?’

	Content elements	
Knowledge & Understanding	• Cultural arts of our country • Cultural arts of other countries	
Process & Skills	• Engaging in cultural arts activities • Creating • Expressing	
Values & Attitudes	• Enjoying cultural arts	

<Table 6> Sample content for the domain ‘Shall we enjoy playing music?’

	Content elements	
Knowledge & Understanding	• Music in everyday life • Fundamentals of musical elements	
Process & Skills	• Singing or playing instruments • Expressing through body movement or play	
Values & Attitudes	• Expressing through body movement or play • Joy of performance	

2) 성취기준(안)

성취기준 또한 변경된 영역 및 영역별 내용 체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먼저 통합교과의 기초를 유지하는 방향에서는 성취기준을 대강화하여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진술하되, (예시 1)과 같이 성취기준 해설에 문화 예술이나 음악 활동의 의미를 보완하는 방식을 따를 수 있다.

(예시 1) [성취기준 해설] '문화 예술'은 음악 및 미술의 표현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즉 혼자나 여럿이 함께 노래, 악기 연주, 미술 작품, 미적 체험 등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한다.

한편 음악의 특성에 초점을 둔 경우, <Table 5>의 '음악을 연주하며 즐겨볼까' 영역을 기반으로 (예시 2)와 같이 성취기준을 구성할 수 있다.

(예시 2)

[2즐01-01] 음악 요소를 탐색하고 노래나 악기로 연주한다.

[2즐01-02] 친구와 함께 노래와 악기 연주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이나 놀이를 한다.

4. 교수·학습 및 평가 구성 방향(안)

현행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에도, 교수·학습이나 평가의 방향이나 방법 제시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는 성취기준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개선안 마련의 기초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성취기준 및 해설이 구체화될 경우 교수·학습 및 평가 항은 대강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2022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분석 내용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가르치고 평가할 내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성취기준 및 해설은 각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수·학습 항에서는 (예시 1)-(예시 3)과 같이 전반적인 '음악' 관련 내용에 대해 명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시 1) [교수·학습의 방향]

- 학생이 기초적인 음악 요소에 관해 노래와 악기 연주, 신체 표현과 놀이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의 흥미와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구안한다.

(예시 2) [교수·학습 방법]

- 악곡은 교육적·예술적·문화적·실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학생들이 악곡의 음악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기호, 숫자, 문자를 활용한 악보, 오선보, 정간보 등 다양한 악보 형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예시 3) [평가 방법]

- 평가는 실기 평가,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을 적절히 활용하되 학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음악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음악 활동의 실제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하에서 초등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그동안 ‘즐거운 생활’ 교과를 향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음악교육적 관점의 본질적 목적과 가치, 교육적 정체성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음악 기반의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현행 교육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국외의 교육과정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두 가지 흐름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2022 개정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즐거운 생활’은 통합 교과 역량을 토대로 ‘놀이 경험 중심 교과’로 정의되어, 문화 예술과 신체활동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음악 관련 내용을 ‘문화’와 ‘예술’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가르칠 내용과 평가의 방향이 불명확하며, 궁극적으로 음악교육의 본질 구현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한, 유치원 누리 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과 교육과정과 내용 및 구조적 연계성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국외 초등 저학년 음악교육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음악이 통합교과 내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지거나 독립 교과로서 명확한 목표와 성취기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악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 체계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셋째, 음악 기반의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하였다. 기본적으로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는 기존의 탈학문적 통합 방식에서 벗어나, 학문적 기반을 존중하는 간학문적 통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놀이 개념을 확장하여 탐구·성찰·표현의 경험으로 정립해야 함도 살펴보았다. 특히, 음악·미술 교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습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초등 3-4학년 이후의 교과 학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즐거운 생활의 틀과 형식, 교과의 성격은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안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음악교육의 본질적·교육적 가치와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적 표현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수행하였다. 제시한 두 개선안 모두 이론적·실천적 타당성을 염두에 두었으나, 현장 적용과 안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교육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 및 교육 현장에 반영되어, 모든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한 풍부한 감성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ek, G. E., Kim, K. H., Cha, D. J., & Lee, J. Y. (2025). An analysis of continuity in music education content across the Nuri curriculum, the pleasant life curriculum, and the 3rd-4th grad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4(1), 179-214.
- Jo, S. Y. (2018). The three stories of the Korean elementary integrated curriculum research.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4), 45-75.
- Ju, D. C. (2024). Reality of 'Enjoyable lif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a historical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2), 117-139.
- K-12 Education Administration & Ministry of Education (n.d.). Laws and regulations. <https://www.k12ea.gov.tw/En/Law/Lawlist?filter=FF9E4DB0-E314-4C31-8054-DC8F8CCB1B58>
- Kim, E. J. (2024a).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school subjects and music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grades 1 and 2 in the first to the third curriculum period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5(2), 97-114.
- Kim, E. J. (2024b). Analysis of music textbooks for 1st and 2n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rom the 1st to the 3rd curriculum period.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22(3), 237-258.
- Kim, E. J. (2024c). Comparison of music learning content in the 'Pleasant life' curriculum and textbooks under the 2015 and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61, 1-25.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1).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for constructing a future-oriented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compared to post-COVID-19*. Research Report CRC 2021-8.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D. H., & Park, J. Y. (2024a).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Pleasant life" for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3), 135-165.
- Lee, D. H., & Park, J. Y. (2024b).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in 'Pleasant life', the 2022 revised integrated textbook for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4), 133-163.
- Lim, E. J., Kim, S. J., & Song, J. J. (2024). A critical review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the 'Pleasant life' subject: Focusing on th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9(1), 55-78.

Ministry of Education (2022).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No. 2022-33.

[Supplementary 2].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24). *Music curriculum*. No. 2022-33. [Supplementary 12].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2017). *Explan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2017 Notification.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Coalition for Core Arts Standards (2014).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rts learning*. National Coalition for Core Arts Standards.

Oh, J. Y., Choi, M. Y., Moon, K. S., Yang, S. H., & Park, J. M. (2024). Analysis of issues in the music area of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and implications on its direction through review of foreign music curricula.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9(10), 187-213.

Song, J. J., & Kim, A. H. (2024). Reflection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2022 revised ‘Pleasant life’ curriculum: A comparative analysis of early-grade music curriculum in international context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7(4), 105-127.

Yang, S. Y. (2024). An analysis of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integration of ‘Pleasant life’ over time through the music curriculum.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4(3), 25-46.

Yang, S. Y., Lim, E. J., Lee, S. M., Park, J. Y., & Song, J. J. (202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usic education in ‘Pleasant life’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3), 115-134.